

“한국이 복 받은 이유, 예배와 기도에 있었네요”

선교사의 나라 한국 찾은 페루의 홀리오·빅토리아 곤잘레스 부부



큰딸 결혼을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윤수(왼쪽)·박병순(오른쪽 끝) 선교사와 뒤따라 한국에 온 곤잘레스 부부.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주중에 모이는 구역예배...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 주시는 이유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있었네요. 본국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잠자는 페루를 깨우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온몸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중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 페루(Peru)에서 생애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찾은 홀리오 곤잘레스(49)와 아내 빅토리아 곤잘레스(47)는 한국에서 만나는 것마다 신기해했다. 특히 매 정한 시간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를 시작하는 한국교회 현장을 보고는 “하나님이 한국에 복 주시는 이유”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을 둘러보며 놀라워하는 곤잘레스 부부의 방한을 놓고 ‘기적’이라며 더 큰 놀라움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페루에서 17년 간 선교하며 이들을 전도하고 훈련해 교회 리더로 세운 선교사 박윤수 목사(57)·박병순 사모(55) 부부다. 곤잘레스 부부의 무모한(?) 도전은 여행을 감행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박 선교사 부부에게도 곁을 접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선교사의 나라는?

곤잘레스 부부의 한국 방문에 박 선교사 부부가 놀란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는 베네수엘라와 독일

을 거쳐 3일 거리를 그들 혼자 힘으로 찾아왔다는 것과 항공료 6천불을 감당하면서 감행한 일이라는 사실에서다. 페루에서 경찰의 한 달 임금이 200불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6천불은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박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인천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그곳에 와 있는 곤잘레스 부부를 보고는 너무도

나의 끈이었다.

전환번호 하나 들고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찾은 이유를 곤잘레스 부부에게 물었다.

“먼 곳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준 선교사님의 나라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꼭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해 달라고 10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선교사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에 기도를 답이라고 생각했지요.”

한국에 간다니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공황에서 온 가족의 배움을 받으며 출발했지만 난관이 많았다. 우선 언어 문제. 거처는 나라마다 페루의 공용어인 스페인어가 통하지 않는 것. 그런데 베네수엘라나 독일에서도 우연히 스페인어가 통하는 항공사 직원을 만나 안내받을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인천공항에서 박 선교사부부와 전화통화가 단번에 연결되어 15명의 대기자 중 유일하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게 된 것 등 곤잘레스 부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결입이었다고 고백했다.

신앙을 배우다

곤잘레스 부부 중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남편인 홀리오 곤잘레스였다. 자신의 간증을 들려달라는 말에 그는 어두웠던 과거를 떠올리기를 꺼려했다. 15년 전, 마약밀거래 조직의 중간보스 격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박 선교사 부부는 먼저 그의 부하를 전도했고, 자기 부하를 빼낸 사람을 죽이겠다고 총을 대동해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 역시 박 선교사 부부였다. 조직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다.

믿음과 신앙의 의미에 대해 홀리오 곤잘레스는 “과거에는 마약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만족함이 없고 두려움에 놀려 살았는데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며 “예수님께서 실수투성이의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우며 자라가고 싶다”면서 박 선교사 부부와와의 만남이 갖는 소중함을 토로했다.

아내인 빅토리아 곤잘레스(47)가 세례 받은 것은 2년 남짓 되었다. 남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던 그녀는 남편의 말씀공부와 기도하는 모습에 거저와 위선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압박에도 변함 없는 모습을 결해서 지켜보면서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마음을 열어키게 됐다. 또 그가 신앙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페루에 만연해 있는 ‘거짓 신앙’ 때문이

기다 했다. 인구의 81%가 가톨릭 신자인 것을 자처하지만 많은 숫자가 성당에 나가지 않고 말뿐인 것을 자주 보았던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진실된 모습과 남의 나라에 와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며 자신의 신앙 계기를 드러냈다.

교회를 배우다

인천공항에서 발이 묶인 곤잘레스 부부를 만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며 그들의 무모한 행보를 나무랐지만, 한편 박 선교사 부부는 17년 전 집사 직분으로 페루로 건너가 텍스문전, 김치·떡 장사를 하며 페루의 복음화를 위해 도전장을 던지고 좌충우돌 선교기를 이어온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을 떠올리며 웃음 지었다.

더욱이 곤잘레스 부부는 이번엔 한국 곳곳을 돌며 예배 현장을 목도한 것이 큰 배움이 되었다. 박 선교사 부부가 처음 페루에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두세 시간씩 늦는 것은 기본이고 그때 와서 예배드리라고 교회 청소를 시작하고, 새벽예배를 강조했지만 “한국의 문화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것을 보며 여러번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었다. 그런데 백문이불여일견! 한국교회의 예배 현장을 돌아보면 곤잘레스 부부는 자신들과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에 놀라고 있었다.

홀리오 곤잘레스는 “교회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예배드릴 때의 진지함과 새벽에 울려 퍼지는 기도소리, 주님의 몸체인 성전을 위한 헌신, 성도들 간에

영적 끈으로 이어진 모습은 동일했다”며 “교회의 조직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가 가장 마음에 새긴 것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켜지는 점이었다.

홀리오 곤잘레스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자는 페루를 깨우고 말 씀하셨습니다. 한국을 보니 페루는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페루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의 깊은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 복음의 힘과 능력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데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한층 자란 곤잘레스 부부를 대하며 박 선교사 부부는 17년 간의 선교영정이 얼마만큼 열매 맺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해 했다. 그러나 박 선교사 부부가 처음 페루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지상사역 연수만큼 33개 교회 개척을 계획했으니 13개 남았다고 “아직 멀었다”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

“페루의 17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부족들에게는 입구까지만 접근한 상황”이라며 다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곳으로 아마존을 품고 기도 중이라는 박 선교사 부부, “곤잘레스 부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무모한(?) 신앙인들이 페루를 깨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페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정찬양 기자

건강하게 삼시다

유승원

위염이 있으면 소화에 장애를 받는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노인과 어린이에게 여름철 많이 생긴다. 소화불량은 식욕이 없고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고 배가 더부룩하며 구토증상, 설사를 동반할 때도 있다. 이때는 이질풀, 매실 죽을 먹으면 좋다.

한편, 위하수란 위장이 처져있어 소화에 장애를 받는 것이다. 풍성한 사람이 갑자기 말랐을 때, 선천적으로 무기력한 사람, 출산 후 복벽이 늘어졌을 때, 양기부족한 사람에게 많다. 생강즙과 마늘을 끓여 먹어야 한다.

위궤양은 위벽이 짓무르고 심하면 구멍이 생기며 식욕이 떨어진다. 정신적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이다. 위통, 속 쓰림, 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공복 때 무엇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진다. 개나리, 해표초를 불에 볶아 가루 내어 복용한다. 감자 1개, 양배추 10g을 갈아 즙으로 복용하면 좋다.

위장병이 아니라도 임신 중 입덧, 또는 숙취에 시달릴 때 구토가 난다. 배고플 때 갑자기 많이 먹거나 허 밑을 눌렀을 때도 구토가 난다.

1. 구토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2. 가슴과 배가 눌리지 않게 한다. 3. 몸을 따뜻하게 한다. 생강 달인 물이나 엿기름 달인 물을 마신다(02-422-2886).

잠실유승원한의원장



아름다운우리교회



담임 조명선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60-14번지
TEL : (031) 295-7869

정동제일교회



담임 송기성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34번지
TEL : (02) 753-0001~3
FAX : (02) 775-4215

동해제일교회



담임 이홍석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240-81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8-20
TEL : (033) 531-3039
FAX : (033) 532-0611

수도중앙교회



담임 장대영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142-877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23-3
TEL : (02) 908-8508
FAX : (02) 906-0691

임마누엘의 은총, 온누리에 가득하게 하소서

한사랑교회



담임 조일구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404-270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6-6
TEL : (062) 573-4044
FAX : (062) 574-4044

번성교회



담임 임종탁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445-873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1104-1
TEL : (031) 357-8782

성문교회



담임 정영근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152-831 서울시 구로구 교척2동 193-9
TEL : (02) 2684-2926

일광교회



담임 박중학 목사
외 담회와 성도 일동

356-852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림리 431번지
TEL : (041) 662-7881